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글 | 황동열 (중앙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유산기관으로서의 아카이브

●● 아카이브의 개념 및 역사

인류는 당시에 산출된 기억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하였다. 전승된 기록은 후대에 축적되고 활용되어 기록문화를 구성하였고, 또다시 후대에 전해지면서 누적되어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기능들은 종교적 관심에 따라, 권력자의 욕망에 따라, 학문연구를 위한 수단 또는 평등한 시민사회를 요구하는 정치적 열망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서구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온 기구가 아카이브이며, 명칭은 다르지만 동양권에서도 유사한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아카이브의 직접적 어원은 라틴어 아르키붐(archivum)이다. 아르키붐은 '시초', '시작' 혹은 '정부기관'을 의미하는 아르케(archē)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현대적 의미의 아카이브는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아카이브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789년 파리에 국립아카이브(Archives Nationales)가 설립되었으며, 1796년 지방아카이브(Archives Departementales)설치에 대한 법령이 통과되었다. 1838년 영국에서는 공공기록법(Public Record Act)이 제정되었고, 1872년 캐나다에서 공공아카이브가 설립되었다. 미국은 1934년 국립아카이브(National Archives)를 설립했다.

그 밖에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호주·일본·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아카이브가 중앙정부에 의하거나 지방에 분산된 형태로 설립되었다. 1948년 유네스코 후원 하에 열린 ‘아키비스트(archivist)’들의 모임을 계기로 ‘국제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가 파리에서 창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기록보존과 아카이브에 대한 학회가 조직되고, 아카이브에 근무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관련 학과가 설치·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예술기록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성격의 기관은 최근에 일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Korea Film Archive), 국립예술자료관(예술의 전당 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춤자료관 연낙재(硯駱齋),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아카이브, 국립현대미술관 도서관 자료실, 삼성미술관 부설 한국미술기록보존소(Archives of Korean Art)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 아카이브에는 디지털아카이브, 주제별·기능별 예술아카이브가 운영 중이다.

●●● 문화유산기반시설 : 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

문화유산기관인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포함)은 ‘인간의 사상, 언어, 행동의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며 해석’하기 위한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대부터 근대 이전까지 이러한 기구들은 사회 지배계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당대의 기록보존을 위한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기록을 보존하던 장소는 궁전이나 사원이었으며, 르네상스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쇄술의 발전을 통해 도서관과 박물관의 분리가 시작되었고, 근대로 접어들면서 아카이브의 분리도 가속화되었다.

현대적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인쇄서적을 보유한 사설도서관에서 시작되었으며, 17~18세기에는 국립·공공 도서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반면, 공공 성격의 박물관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설립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카이브는 시민혁명 이후 처음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

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도서관과 박물관, 아카이브는 정체성·기능·역할이 더욱 세분화되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운영되고 있고, 디지털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세 기관의 사회적 기능은 르네상스 이후 분화가 시작되어 현대에는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들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각 기관은 유사한 기능과 특징을 갖고 있으나, 소장품의 성격과 가치, 기관의 특성, 분류에 따라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므로 각 기관의 정의에 따라서 기관의 성격과 기능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술분야에서 세 기관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데, 박물관(Museum)에서 미술자료를 다루는 미술관(Art Museum)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왔고, 최근에 콘텐츠(Content) 개념이 확산되면서 예술아카이브를 통해 창의적 발달과 OSMU(One Source Multi-use)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술아카이브는 ‘예술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예술과 관련된 가치가 있거나 증거가 되는 기록자료를 수집·평가·분류·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형태가 ‘기관소속아카이브’와 ‘다원수집아카이브’로 구분된다. 이와 달리 박물관은 ‘인류와 인류 환경의 물질적 증거들을 연구, 교육, 향수하기 위하여 취득·보존·연구·소통·전시를 통해 공중(公衆)에게 공개하며, 개발하고 사회에서 서비스하는 비영리 성격의 항구적 기관’이다.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일반인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다.

세 기관의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세 기관은 조사·연구·교육이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아카이브는 증거적 가치, 즉 사료(史料)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박물관은 향수·감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카이브는 다원수집 아카이브로서의 기능, 미술관은 전시·출판·연구가 중요한 기능이 된다. 다양한 수집 원천과 기록자료를 소장하는 ‘다원수집아카이브’는 적어도 최소한의 연구 기능을 필요로 한



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집하는 기록자료는 기관의 가치만이 아니라 공익적, 학문적 가치에 의해서도 수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비스트의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또 다른 차이점은 '소장품의 특성'에 있다. 아카이브는 기록자료로서 증거적·정보적 가치를 갖는 유일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반면에 박물관은 감상의 대상인 예술작품을 소장하며, 도서관은 정보적 가치를 갖는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디지털 자료 등을 소장한다. 아카이브나 박물관은 원본성이 중시되는 유일한 소장품을 갖는데 반해 도서관은 다수 발행된 자료를 수집한다. 특히, 아카이브의 경우 소장품 특성이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기증에 의해 취득된다.

세 기관의 차이는 '분류'에서 잘 드러난다. 분류의 차이는 기관의 성격과 목적, 소장품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서로 다른 전통에 의해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미리 결정된 '분류체계'에 따라 개별적 항목으로 배열·기술·목록 작업을 하며, 박물관과 미술관은 배열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기술하는 반면, 아카이브는 전통적으로 '소장품의 기원에 따라 배열'한다. 아카이브 분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 즉 '출처의 원칙(Respect des fonds/Provenance)'과 '원 순서의 원칙(Original order)'이 있다. 이것은 아카이브가 증거적 가치를 중요시 해 온 전통에 기인한다.

세 기관은 공통된 문제점과 함께 현대의 기술 발전과 학문적, 문화적 관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세 기관은 모두 동일하게 소장품의 보존과 제공을 주요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소장품의 보존은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며,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가치 있는 물체는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기관들은 보존의 문제에 관하여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공동의 협력이 요청된다. 세 기관의 설립 목적은 소장자료의 제공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 자료의 열람·출판·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公衆)이나 연구자에게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향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체계에 의한 제공방식, DB구축, 공동 색인의 필요성, 전문 용어의 표준화, 자료의 저장 문제가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 이용자의 증가와 기관의 역할을 증폭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예술아카이브와 미술관, 미술도서관은 상호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유사기관과 함께, 지역간, 국가간 동종 및 이종 기관에서도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협력을 촉진·장려하고 있다.

문화·예술아카이브의 유형과 필요성

● ● 문화·예술아카이브의 개념과 유형

문화·예술아카이브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가치 있는 기록자료를 수집·평가·분류·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제 분야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진다. 크게 구분하면 문화나 예술의 한 전문 분야를 집대성하여 발생한 음악·미술(시각)·무용·구술사(언어)·종교의례 등 개별 전문아카이브와 미국예술아카이브(Archives of American Art)·미국인류학아카이브(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일본 오사카국립민족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nology)·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나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등과 같은 주제와 기능면에서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복합아카이브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아카이브는 예술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미술과 관련된 가치 있는 기록자료를 수집·평가·분류·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예술아카이브는 흔히 ‘예술기록 소장품’을 지칭하곤 하는데, 적어도 19세기 중반부터 소장품(collection)이란 용어가 아닌 ‘아카이브’가 같은 의미로 잡지 제목에 사용되었다. 반면에 기록 수집품(archival collections)은 미술 관련 사진의 아카이브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이후 예술아카이브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기관 기록자료나 예술가의 기록과 전시를 위한 기록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지칭하게 되었으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청각 자료의 수집까지 가능해진 후부터는 공연예술 분야도 포함하게 되었다.

예술아카이브의 유형은 그 소장품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술가·수집가·화상·비평가·출판인·박물관과 미술관·예술협회·화랑 등 예술 관련 기관의 원본 기록자료를 보관하는 아카이브이다. 이 유형은 작품이 아닌 원본기록들 즉, 왕래서신·일기·메모·소품·재무서류·비평문과 전시 카다로그·포스터·초청장·사진 등의 전시 관련 기록 그리고 관련된 인물의 인터뷰

나 증언 등을 보관한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갤러리 아카이브(Tate Gallery Archives)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미술아카이브(Archives of American Art)가 이 유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두 번째 유형은 준 작품적 성격의 자료를 소장한다. 회화·조각·건축·산업디자인을 위한 스케치·원본 삽화 등의 시각예술에 준한 작품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예술적 가치에 따라서 작품으로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지만, 엄밀하게 예술작품은 아니다. 이 유형은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국립아카이브(National Archives)의 미술부(Picture Division)와 같은 공공적 기관에서부터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아카이브(Frank Lloyd Wright Archives)와 같은 사립아카이브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세 번째 유형은 참고·연구 및 교육 목적을 위해 수집된 예술작품의 사진·인쇄물·필름 등을 소장한다. 이런 소장자료는 상업적 복제·유통에 적극 활용되기 때문에 이 유형의 예술아카이브는 공공적이지만 빈번하게 상업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이런 소장품은 정보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연구·출판·복제를 위해 사용된다. 유네스코의 국제 예술작품 사진아카이브 목록은 87개국 600개가 넘는 사진목록을 가지고 있다.

3가지 유형의 예술아카이브는 비영리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이외에 다른 유형의 예술아카이브는 상업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아카이브들이다. 대부분 전 세계 출판사, 광고대행사, 복제품 제작회사 등을 대상으로 미술 관련 기록을 제공,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영리, 비영리 조직을 구분하는 것은 그 기관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달라진다.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기관의 목적이 비영리 성격이라면, 비영리조직으로 분류된다.

● ● 예술아카이브의 필요성 및 중요성

예술아카이브는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기관으로 예술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예술역사를 올바르게 정초(定礎)한다. 또한 후대에 문화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예술활동에 대한 규준을 제공한다. 문화에 대한 역사적

전통과 정통성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술분야에서도 중요해졌다. 예술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민족은 이미 예술문화에 관한 한 자주적이지 못한 식민지에 불과하게 된다.

둘째, 예술아카이브는 예술 관련 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책임행정을 유도하여, 사회 공공조직의 효율적·개방적 운영의 기틀이 된다. 이것은 2000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다. 즉,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 박물관, 예술대학, 예술 관련 단체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기관은 본래의 사명을 올바로 성취하고, 도덕적으로 고무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수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왕성하고 다양한 연구를 촉진시켜 심도 깊은 지식을 양산할 수 있다.

셋째, 예술아카이브는 예술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심도 깊은 학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특히, 예술사와 예술이론, 교육, 비평과 함께 작가를 양성하는 대학, 학교에 유용한 연구자원을 제공한다. 도서관과 달리 예술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록자료들은 유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또한, 예술아카이브가 예술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존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타학문과의 긴밀한 연계나 학제간 연구에도 기여를 한다.

넷째, 예술아카이브는 역사적 기록을 수집·보존하여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예술문화의 온전한 향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 이를 통해 일반대중은 예술 이외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시청각 예술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예술아카이브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기관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술문화의 향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예술아카이브는 예술문화의 '정신적 자산', '토대'의 역할을 하므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문화와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콘텐츠이다. 기초가 굳건할수록 깊이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으므로 예술아카이브는 문화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토대로써 그 역할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 문화·예술아카이브의 특성

문화·예술아카이브는 공익성·비시장성·공정성·독립성(자율성)·전문성·협력성 등 6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예술아카이브는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예술의 역사를 올바로 정초하며, 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학문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이익을 달성한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예술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의 차원으로부터 학회, 협회, 사설박물관 등의 비영리 조직과 지방,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예술아카이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예술아카이브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공공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예술아카이브는 투자비용 대비 적정규모의 시장을 가질 수 없는 '비시장성'의 특성을 갖는다. 즉, 예술아카이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취득하기에는 시장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예술아카이브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과 함께 보존을 위한 설비, 정보제공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아카이브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술아카이브는 '비시장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예술아카이브의 비시장성과 공익성 때문에 예술아카이브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비영리분야에서 설립·운영된다.

셋째, 예술아카이브는 예술 역사를 정초한다는 의미에서 공정성의 특성을 갖는다. 예술자료를 평가하고 선택적으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필요한 조직이다. 역사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기관은 특히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왜곡될 것이며, 일부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조작되고 진실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술아카

이브는 기록자료를 공정하게 수집,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이외에 일반 이용자에게 기록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도 공정해야 한다. 정보는 곧 권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아카이브는 투명한 경영과 함께 소속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중요한 조직이다.

넷째, 예술아카이브는 공정성 때문에 독립성(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예술아카이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돈이나 권력 혹은 이익집단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조정 당한다면, 예술아카이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예술아카이브 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성과 자율성은 제대로 된 예술아카이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특성이다.

다섯째, 예술아카이브는 전문적인 조직이다. 문화·예술에 관한 해박한 지식, 기록보존을 위한 지식, 평가 및 분류를 위한 판단, 정보제공을 위한 기술, 기록관리 경험 등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술아카이브가 제대로 설립 운영되려면, 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아카이브는 사회에서 다양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작가·비평가·화상 등과 화랑·박물관·예술협회·경매회사·대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정보제공을 위해서도 예술도서관, 박물관 등의 유사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6가지 특성들은 ‘문화예술아카이브가 어떠한 형태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효율적 운영방향

문화유산 인프라로서 예술아카이브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는 복합체계로서의 예술아카이브의 기능은 크게 기본기능과 확대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예술아카이브의 첫 번째 기본기능은 ‘수집·보존’ 기능이다. 이는 자료 수장가, 은퇴 예술가, 학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증 유치활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수집·보존 기능은 수장 공간의 보존환경 최적화를 이룸과 동시에 밀폐

된 수장공간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기본기능은 ‘연구기능’으로 국내외 예술자료를 조사·연구·보급하고 희귀, 소멸자료의 발굴 및 재생을 통하여 예술연구를 시행한다. 다음은 ‘전시기능’으로 크게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로 나누어지며, 내용면에서는 예술의 역사 연대별 전시와 장르별 전시로 나눌 수 있다. 예술가 개인별 자료관도 훌륭한 전시공간으로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교육’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술아카이브는 출판·강좌·체험 교육 및 일반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통하여 문화예술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확대기능은 문화유산 기관의 포괄적 개념이다. 예술아카이브는 도서관적 역할에 박물관적 기능을 더하여 새로운 예술연구·창조·실험 기능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변모하고 있다. 또한 예술자료의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여 자료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를 확립하고, 전국 문화예술공간의 정보자료관센터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자료 토털아카이브시스템을 구현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예술자료 종합 목록 및 통합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술자료 검색 및 열람을 지원하여야 한다. 향후 예술아카이브는 해외 예술자료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 예술시장의 세계화에 힘쓰고 한국 예술의 국제화를 선도하며,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IN**

● 필자소개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예술의 전당 예술자료관 개발팀장과 미술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